

獨學 學士考試 운영에 바란다

朴 星 來

(韓國外大 史學科)

지난 10월 드디어 獨學에 의한 學士考試 첫 시험이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거의 9천 명에 가까운 지원자 가운데 응시자는 3분의 1 정도, 그리고 합격자는 12월 하순에나 발표될 모양이다. 합격자는 다시 그 3분의 1이나 될까? 만약 그렇다면 첫 해 시험의 교양 과목 합격자는 1,000 명도 되지 않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번에 시행된 고사 과목 8가지에 모두 합격하는 사람은 1천 명은 커녕 100 명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문제는 이 합격자가 그대로 學士 資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8과목에 합격했다는 것은 겨우 대학 1학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들은 다시 2, 3, 4학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후하게 생각하여 3분의 1 비율을 해마다 한 번씩만 적용한다면, 이번에 8과목에 합격할 100 명이 2학년을 마치면 33명만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이 3학년을 마치면 11 명이 남을 터이고, 4학년의 전 과정을 마쳐 한국 역사상 최초로 독학에 의한 學士證을 받는 날에 그 수는 겨우 4명이 될 판이다.

1년에 겨우 4 명의 학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 넣어 야 했다는 말인가? 이 제도를 위해 정부에서는 중앙교육평가원에 아예 '학위검정부'를 새로 만들었다. 또 전국의 교육위원회 아래 모두 203 개소의 '독학정보 상담실 및 안내실'도 만들었고, 반상회를 통해 전국 가정에 안내서 900 만 부가 배포되었다. 여기에 든 돈만 해도 엄청난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4 명의 獨學學士 輩出에 드는 비용은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 이번 시험을 출제·관리하는 데에만도 대단한 경비가 들었을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시험 준비를 위해 수험생들이 쓴 경비는 또 얼마나 많은 것일까? 이미 독학 학사 고시 시험을 준비해 주겠다고 신문 광고를 열심히 내는 학원이 꼬리를 물고 나타났고 그 준비를 위한 월간 잡지도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교재와 테이프들이 신문 광고를 거쳐 경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잘하면 大學入試 市場에 버금가는 황금 시장의 형성이 눈 앞에 아른거리는 듯도 하다.

또한 이런 독학 학사고시 준비를 위한 학원의 번창은 앞으로 이들을 準大學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도 보인다. 이미 존재하는 초급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아닌 준대학에는 앞으로 독학 학사의 전공 과목이 결정되는 데 따라 專任教授 제도가 생길 것으로 기대

된다. 이미 설치된 학과로는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가정학과, 수학과 등 6개 학과가 있고 연차적으로 설치 학과를 늘려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獨學學士 學院에는 이들 각 과의 전임 교수가 채용될 것이고, 학과가 늘어남에 따라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어느모로 보거나 이들이 華大學이 될 것은 뻔하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정규 대학으로 성장할 것도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외국 유학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대학 교수 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 비슷하게 되어 가는 듯한 오늘, 이렇게라도 교수 자리 수를 늘려 간다는 것이 그저 좋기만 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미 교양 과목 시험만 실시된 이번 경우에도 신문 광고에는 갖가지 학원 광고가 나왔다. 수강료는 많은 경우 69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말이 독학 학사고시지 실제로는 이들 대부분이 거의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을 내고 8과목의 교양 교재와 그 강의 테이프를 사게 되는 것이다.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독학 학사고시는 모순 투성이인 것이다. 우선 이번에 실시된 教養科目의 경우부터 살펴 보자. 교양 과목으로 수험생은 필수 3과목(국어·국사·영어)과 선택 과목 3분야에서 각각 1 또는 2과목씩 선택해 모두 8과목을 치르게 된다. 이들이 시험 본 선택 3분야란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이다. 人文分野에는 국민윤리·문학개론·철학개론·문화사·한문, 社會分野로는 법학개론·경제학개론·경영학개론·사회학개론·심리학개론·교육학개론, 自然分野로는 자연과학개론·일반수학·초급통계학·건산개론·과학사 등이 있다.

이들 8개 분야의 시험에서 수험생은 대학 1,2학년에서 배우는 정도의 수준을 검사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에서 각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1년 동안의 수강 과목을 한꺼번에 기말 시험 한번으로 평가받는 일이 거의 없다. 실제로 전국 대학에서 1년 동안 이들 8개 과목을 공부한 학생 3,000명이 이번 시험을 쳤다고 과연 몇 명이 합격할지는 극히 의문이다.

그렇다고 대학 수준 이하로 너무 쉽게 출제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국어·영어·수학 등 3개 필수 과목과 국민윤리·문화사·자연과학개론·일반수학 등을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준보다 더 어렵게 출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렇다고 고교 수준을 밀도는 문제로 대학 교양 과목 시험을 볼 수도 없지 않은가? 또 이들 교양 과목의 내용도 대학마다 각양각색이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딜레마에 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改善를 提案한다. 즉, 고등학교 과목과 똑같은 과목을 독학 학사고시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즉, 국어·국사·영어 등등을 없애는 대신 국어 과목은 한국문학사·한국어 문법 등으로, 국사 과목은 한국정치사·한국사상사 등 몇 가지로 세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앞으로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一般大學과의 交流를 촉진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정부는 각 대학이 1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轉科를 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미 어느 대학에서는 편입생 모집을 광고하고 있다. 독학생에게도 언제든지 編入과 轉科를 자유롭게 개방함은 물론, 특히 교양 과목이나 그밖의 수요가 많은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 대학에서 이들을 위한 야간 특설 강좌를 열어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독학 학위가 一般大學에서의 授講으로 보충되는 制度的 裝置가 하루 속히 개발되지 않고서는 모처럼 마련된 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